

전기수와 떠나는 동의보감 이야기 여행

완판본문화관, 24일~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에서는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야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기수와 떠나는 동의보감 이야기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으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기수는 조선 후기 사람들에게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직업이다.

완판본문화관에 따르면 생동감 있는 연기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던 이야기꾼 전기수는 조선시대 인기 연예인이었다. 전기수의 활약은 민중들에게 넓은 견문과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했고 향유층의 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소설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날 책은 '동의보감'이다.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완판본 동의보감 속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예방, 건강유지 등 공중보건에 대한 의학 전문 지식이 담겨있다. 기록문화

유산인 동의보감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기수의 구연방식과 체험, 놀이를 접목한 오감만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반은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10시~12시, 일반인반은 성인을 대상으로 오후 2시~4시 매주 토요일 총 8회 차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조연수(소리꾼·전북대 한국음악학과) 주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스토리텔러, 연극인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전문 연극인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안준영 관장은 "전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가 제3회 온고을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에 참가해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우리 동네 이야기꾼 전기수 프로그램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이야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성인과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며, 수강 인원은 각 10명 내외로 16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신청 및 문의는 완판본문화관(063-231-2212~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완판본문화관에서는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야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기수와 떠나는 동의보감 이야기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화속의 아름다운 클래식'

16일 김제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드림필 첫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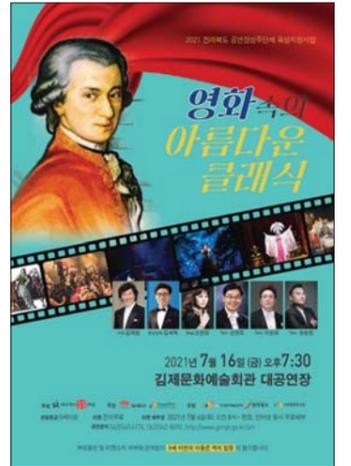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에 '영화속의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1년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 사업 선정결과 김제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결정된 전문예술단체 (사)드림필이 가지는 첫 공연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을 영화 영상과 더불어 오케스트라와 성악가의 협연으로 준비했다.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을 비롯하여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20번 교향곡' 등의 영화 삽입 곡 연주와 오페라 미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 '향수', '네손 도르미', '오셀레미오' 등의 성악곡을 감상할 수 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배부는 오는 6일 오전 8시부터 현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에 '영화속의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배부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 둔산영어도서관, 상주작가 도서 추천 서비스 운영

완주군(군수 박성일) 둔산영어도서관의 상주작가가 매주 금요일 도서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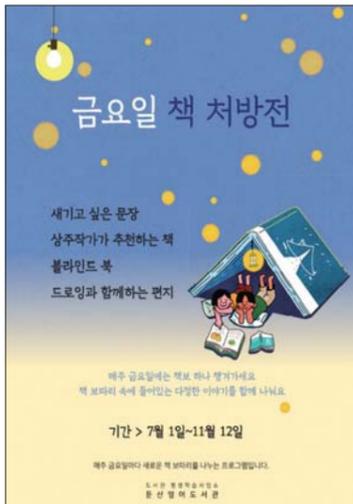
1일 둔산영어도서관은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주작가 도서 추천 서비스인 '금요일 책 처방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요일 책 처방전은 상주작가 추천도서 목록과 추천 도서에 나와 있는 새기고 싶은 명문장, 드로잉과 함께 하는 편지를 담은 문화처방전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상주작가가 선정한 키워드별 도서를 포장해 블라인드북 대출 서비스를 실시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 선택 길잡이는 물론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둔산영어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시 창작 교실', '펜드로잉 수업', '디카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해희 완주군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상주작가가 건네는 마음 처방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외감, 불안뿐만 아니라 일상 속 고민에 대한 정서적 환기로 풍요로운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 문화관광해설사, 뉴노멀 시대 맞춤형 관광지·코스 발굴 위한 답사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뉴노멀 시대 맞춤형 전북 관광지를 발굴하고자 2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소규모 개별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답사는 타 지역 선진지단체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수요에 발맞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답사를 기획, 우리 지역의 맞춤형 관광지·관광코스를 발굴한다.

이번 답사는 단순한 관광지 견학에 그치지 않고, 뉴노멀 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대두되는 공정관광, 생태관광, 무장애 관광, 반려동물 동반, 웰니스 관광 등 5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발굴된 관광코스 등은 향후 지역 및 테마별로 분류 후 지역 관광지 DB를 구축하고, 디지털 홍보물로 제작해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관광지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피드백을 해당 시·군과 공유해 향후 관광코스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전라북도 관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건희 컬렉션' 활용 방안 7일 발표

황희 문체부 장관,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서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에 대한 활용 방안을 오는 7일 발표한다.

수십여 곳의 전국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힌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음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비롯해 문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다.

앞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지난 4월 28일 이 회장 소장품 1만1023건 약 2만30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기증품 중에는 경제 정선의 '정선필 인왕계 색도(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15호)',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 '김홍도필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보물 46건)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다.

특히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이인성, 이중섭, 천경자 등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의 명작들과 모네, 샤갈, 달리, 피카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됐다.

답사 황희 문체부 장관은 "모처럼 삼십이 기증한 작품들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수장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떤 형태가 됐든 미술관과 수장고를 새롭게 건립할 생각이 있다"며 '이건희 미술관' 신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이후 문재민 대통령이 "이 회장의 미술품 기증 정신을 잘 살려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 추진은 본격화됐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